

《中朝學士書翰錄》의 脫草 原文 및 校釋

강찬수* | 원광대

김희경** | 서울대

차영익*** | 을지대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中朝學士書翰錄》 탈초 원문 및 譯註

국문초록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는 《중조학사서한록》은 1858년 동지부사 자격으로 연행한 바 있는 소정 김영작이 귀국을 전후하여 청나라 문인인 정공수, 진한, 이합, 옹학합, 장병염, 이문원 등 6명의 청나라 문인들로부터 받은 14편의 친필서한과 그의 아들 도원 김홍집이 1892년에 조정황에게서 받은 1편의 친필서한을 모아놓은 척독자료이자, 19세기 한중 양국 문인들의 시문 교류 상황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자료이다.

원문 전체에 대해 초보적으로 진행한 탈초와 교석, 한중 양국 문헌의

* 제1저자,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후 과정생

*** 공동저자,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비교 작업을 통해 《중조학사서한록》 15편의 서한 내용 중에서 현전하는 연행록 및 이들의 문집자료에 미 수록된 내용들이 발견됨으로써, 김영작 부자와 청나라 문인들의 관련 사적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고 김영작 부자의 문집에 미 수록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본 척독자료는 19세기 한중 양국 문인들이 담론한 사학 관념, 심리 변화, 문헌 교류 및 상호 문화 등에 관한 교류 정황 및 의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그 원문과 각주, 현대어 번역문을 차례로 정리하여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중조학사서한록, 김영작, 김홍집, 청조문인, 연행, 척독

1. 들어가는 말

고려대학교 도서관 漢籍室에 소장되어 있는 《中朝學士書翰錄》¹⁾은 1858년 冬至副使 자격으로 燕京에 다녀온 邵亭 金永爵²⁾이 귀국을 전후하여 淸나라 문인들로부터 받은 14편의 친필서한과 그의 아들 道園 金弘集³⁾이

1) 청구기호는 [화산-貴-661A]이다.

2) 金永爵(1802-1868):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德叟이며, 호는 邵亭이다.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지낸 金弘集의 아버지이다. 1838년에 蔭補로 靖陵參奉이 되었고, 憲宗 23년(1843) 식년문과의 甲科에 급제하였다. 이후 吏曹, 戶曹, 禮曹, 兵曹參判 및 漢城副左尹, 漢城副右尹, 司憲府大司憲, 弘文館提學 등을 역임한 뒤, 高宗 연간에는 開城府 留守를 지냈다. 1858년(哲宗9年) 10월 26일에 冬至副使자격으로 연행하여 이듬해 3월 20일에 돌아왔다. 그의 저서로는 《邵亭稿》, 《淸廟儀禮》 등이 있다.

3) 金弘集(1842-1896): 金永爵의 아들로서 初名은 宏集이고, 字는 敬能이고, 號는 道園 또는 以政學齋이다. 1867년(高宗4年) 慶科庭試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1880년에는 修信使로 임명되어 일본에 건너가 黃遵憲의 《朝鮮策略》, 鄭觀應의 《易言》을 가지고 돌아와 당시 개화정책 채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壬

1892년에 趙廷璜에게서 받은 1편의 친필서한을 모아놓은 尺牘자료이다.

이 서한집에는 김영작이 연행을 마칠 즈음에 주고받은 송별시, 연행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간 김영작에게 청나라 문인들이 보낸 안부인사, 김영작이 북경에서 교류했던 知人들에 관한 근황 소개, 서적과 詩文 교류, 양국 문화에 대한 비교 등 옛사람들의 고상한 ‘文人之交’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한 서한집 곳곳에는 洪良厚, 李尙迪, 申在植, 申錫愚 등의 조선 문인과 葉名禮, 吳昆田, 楊傳第, 李伯衡, 馮志沂 등의 청나라 문인의 이름과 소소한 행적들이 언급되고 있어 당시 양국 문인들의 활발한 교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9세기 중후반 太平天國의 난과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에 빠진 청나라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청나라 문인들의 시름 섞인 하소연은 김영작, 김홍집 부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 개화파의 등장 배경과 개혁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史料의 가치를 담고 있기에 본 서한집의 전문을 탈초 교석하여 학계의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中朝學士書翰錄》 탈초 原文 및 譯註

2.1 第一信

邵亭仁兄大人閣下

午軍亂을 수습하기 위해 조정에서 일본·청나라와 濟物浦條約을 체결할 때에는 全權副官으로 임명되어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의 수습을 위해 總理交涉通商事務에 임명되었고, 그해 7월 軍國機務處가 신설되자 領議政 겸 軍國機務處總裁官에 임명되어 내정개혁을 추진했다. 12월 軍國機務處가 해체될 때까지 總理大臣으로 제1차 甲午改革을 주도했고, 이후 內務大臣 朴泳孝와 연립내각을 수립하고 <洪範14條>를 발표하며 제2차 개혁을 주도했다. 1895년에 역모사건으로 박영효가 일본에 망명하자 친미파·친러파 등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제3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다. 그의 저서로는 《以政學齋日錄》, 《修信使日記》, 《金總理遺稿》 등이 있다.

正月間寄函並綢硯茶筆四事，與壽詩四幅，囑來併趙姓齋呈，想已鑒及。昨奉惠書，得與李枕泉學士屢次握手晤談，籍諗吾兄俯仰湖山，退食⁴⁾之暇，頗足自娛，道體⁵⁾清適，遠懷良慰。二姪入庠，采芹⁶⁾誌慶，從此掇巍科歷清要，以承家學，彌切頌祝。三姪功夫當益精進。四姪解嬉笑，此時當咿唔學語矣。

拜讀大著，祭李⁷⁾葉⁸⁾二公文，沉摯悲痛，令人讀未竟而淚下。和吳稼軒⁹⁾二章，若有潤臣，幾欲呼之出也。兄深於情，故能賑篤敦厚如此。所委交二信，稼軒回清江¹⁰⁾，今春正二月之交，清江失守¹¹⁾，不知其遷流何所矣。張午橋¹²⁾揚州人也，已入詞館¹³⁾。回籍惟楊汀鷺¹⁴⁾，南宮應試報罷，入東河¹⁵⁾帥黃莘農¹⁶⁾幕府，稼軒

-
- 4) 退食: 공무를 마치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道體: 문언체 서신에서 상대방을 修道하는 사람 또는 학문하는 사람이라고 높여 부르는 말이다.
 - 6) 采芹:秀才가 府縣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을 가리킨다.
 - 7) 李伯衡(?-1859): 호는 雨帆 또는 春帆, 자는 夢韶이다. 李裕元이 쓴 《林下筆記》卷25의 <春明逸史>에서는 李伯衡이 1826년에 燕行 온 洪大容의 손자 洪良厚를 만나 그를 통해 金永爵의 詩文을 접하고, 그것을 裝幀을 꾸며 帖을 만든 뒤 여러 사람들에게 題跋을 구했다고 적고 있다. 그 후 金永爵와 李伯衡은 수차례 和答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金永爵은 이백행이 죽자 이를 애도하여 <祭李雨帆河督文>을 지어 보냈다.
 - 8) 葉名澧(1811-1859): 자는 潤臣이고, 호는 端四生 또는 翰源이며, 書室名은 橋西老屋(虎坊橋 근처에 소재)이다. 본관은 湖北 漢陽이다. 1837년 舉人으로서 선발된 뒤 中書侍讀과 中翰 등의 관직을 거쳐, 1859년에는 浙江省 道員을 역임하였다. 《周易》, 《爾雅》, 金石文을 좋아했고, 詩에도 능했다고 전한다. 김영작은 그가 세상을 뜨자 <祭葉潤臣觀察名澧文>을 지어 애도하였다고 전한다.
 - 9) 稼軒: 청말 문인인 吳昆田(1808-1882)의 호이다. 그는 初名이 大田이며, 후에 昆田으로 개명하였다. 자는 雲圃이고, 淮安府 清河縣(지금의 淮安市 일대) 사람이다. 道光 14年(1834)에 舉人으로서 선발된 뒤 中書舍人과 刑部河南司員外郎 등을 관직을 역임했다. 그의 저서로는 《漱六山房全集》, 《漱六山房讀書記》, 《山陽風俗物產志》, 《四川總督吳公事略》 등이 있다.
 - 10) 清江: 지금의 江西省 吉安 일대를 가리킨다.
 - 11) 1860년에 太平天國軍이 江南 지역에서 세력을 넓혀 가던 정국을 가리킨다.
 - 12) 午橋: 청말 문인인 張丙炎(?-1905)의 자이다. 그의 호는 藥農 또는 榕園이고, 본관은 江蘇 儀徵이다. 咸豐 9年 進士로 선발된 뒤 翰林院 編修를 거쳐 廣州 廉州府를 다스렸다. 이후 道員으로 승직하여 鹽運使銜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冰廳館詞》, 《榕園叢書》가 있다.
 - 13) 詞館: 翰林院을 관장하는 직책을 가리킨다.

之信, 將來郵致汀鷺, 陳少言¹⁷聞已出京, 夢韶之長子名文源¹⁸, 號心傳, 前任戶部郎中, 聞此時已納賢爲戶部觀察矣. 其次三兩子名字未知, 年歲官階亦茫然, 渠寓去弟居不遠, 夢韶之父爲弟先公同年¹⁹【嘉慶辛酉科】而弟又與夢韶之兩弟同年²⁰, 是以夢韶壽歸, 弟在彼助祭, 竟日亦其親戚招致, 之若夢韶之子, 茫乎不知也. 少言信亦只好留侯伊來再交, 蕙舫²¹無辜被逮繫獄, 四五月矣, 現在此間事大率如此, 不必爲蕙舫惜, 剝喪元氣, 有百倍於蕙舫者. 蓉翁尙書²²亦局局

-
- 14)汀鷺: 청말 문인인 楊傳第(생졸년 未詳)의 호이다. 그는 자가 聽臚이고, 본관은 陽湖이다. 咸豐 2年(1852)에 舉人이 되어 葉名澧·尹耕雲·李汝鈞·吳懷珍·莊棫·譚獻 등의 당대 名士들과 교유하였다. 咸豐 7年(1857) 會試에 재차 낙방하자, 東河河道總督 黃贊湯의 휘하에 들어갔다. 그의 저서로는 《汀鷺遺文》이 있다.
 - 15)東河: 雍正 7年(1729)에 설치된 河東河道總督의 줄임말로서, 河南과 山東 일대의 黃河와 運河에 대한 방제 작업을 담당하였다.
 - 16)辛農: 청말 문인인 黃贊湯(1805-1869)의 자이다. 그의 호는 徵三이고, 본관은 江西 廬陵이다. 道光 13年(1833) 進士로 兵部右侍郎·刑部右侍郎·戶部右侍郎·福建學政·河南巡撫 등을 지냈다. 1858년에 通政使에 올랐고, 咸豐 9年(1859)부터 同治 元年(1862)까지 東河河道總督을 역임했다.
 - 17)陳少言(생졸년 未詳): [第3信] 후미에는 “少巖翰”의 서명과 더불어 “陳翰之印”이라는 음각 주문방인이 찍혀져 있다. 추측건대 본 서신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陳翰이고, 그의 별호가 少言 또는 少巖인 것으로 보인다.
 - 18)李文源(생졸년 未詳): 金永爵과 친분이 두터웠던 李伯衡의 아들로 호는 心傳이다. 戶部郎中과 戶部觀察 등의 관직에 올랐다.
 - 19)嘉慶 辛酉年인 1801년을 가리킨다.
 - 20)道光19年(1839) 乙亥科를 가리킨다.
 - 21)蕙舫: [第8信]과 [第9信]을 쓴 翁學涵(생졸년 未詳)의 별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제8신]에서 “저는 공무상의 곤액을 당한 후로 그 죄에 대한 벌금을 치르고 낙향하게 되었다가, 세 달 만에 태평천국의 난적들이 요강(姚江) 지역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涵自遭厄後, 贖鏹歸田, 甫三月而賊陷姚江, 其間險阻艱難, 備嘗之矣).”라고 하였고, [제9신]에서 “여러 벗들과 친척들이 이천여 전(錢)을 모아 저를 도와준 덕에 죄를 감면받아 이역 땅에서 늙어 죽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스러운 뿐입니다(蒙諸友親湊助二千餘金, 得以捐免, 不致老死異域, 幸已).”라고 하여 자신의 근황을 김영작에게 전해주었다. 그의 저술로는 咸豐 3年(1853)에 翁學濬과 함께 편찬하고 간행한 統宗堂 목활자본 《餘姚東門翁氏家乘》이 있다.
 - 22)蓉舫: 청말 문인인 趙光(1797-1865)의 자이다. 그의 호는 退庵이고, 본관은 昆明이다. 嘉慶 25年(1820)에 進士科에 합격하였고, 후에 刑部尙書를 역임했다. 景福宮의 威和堂과 昌德宮의 樂善齋와 閒靜堂에 걸려있는 “瓦當文延年益

如轅下駒，驚悸憂患有不得不時時乞假者。所以此次惠書無從與之傳覲耳。前寄鶴僑書扇詩韻均寄去，自清江道梗，音信艱滯，至今無復書。杭州失守，雖卽收復，而弟家殉難三人。吳擷蘅²³⁾聞奉母而逃，全家無恙，然今年並無來信，此數日來又不暇慮及桑梓之變將有眉睫之觀。弟雖無官守，而跬步不可離，以一出國門，毫無插脚處也。日夕爲范文子求作葉潤臣不可得，每顧小兒女小孫爲之泫然出涕，此輩何辜，何不遲數年出世耶！弟心情如此，問之枕泉可以盡知。潤臣處筆談卷子弟手錄一分寄上，原跋語不能記憶矣。

前數日尙與任荷漪²⁴⁾李枕泉²⁵⁾兩公唱和。此數日來情狀甚惡²⁶⁾，使者明日行亦大事幸，籍托奉牙尺一事，墨四匣，洋箋百廿幅，詩牋一匣，祈督收。嗣後能通信與否，竟不可知，千里一心，惟鑒念而已。肅復，恭頌雙祺。無任翹企，依戀之至。

愚弟 程恭壽²⁷⁾ 拜

壽，銅盤銘富貴吉祥”라는 柱聯이 바로 그의 친필 글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光緒 16年(1890)에 아들인 趙廷璜이 간행한 《趙文恪公遺集》과 《趙文恪公自訂年譜》가 있다. 諡號는 文恪이다.

23) 擷蘅: 정말 문인인 吳受薰(생졸년 未詳)의 호이다. 그의 자는 鳥士이고, 본관은 仁和이다. 道光26年 優貢으로 선발된 뒤, 八旗官學에서 教習이란 관직을 역임했다. 그의 저서로는 《劫餘存稿》가 있다.

24) 荷漪: 조선 말기 문인인 任百經(1778-1865)의 호이다. 그의 자는 文卿이고, 본관은 豊川이다. 純祖 27年(1827)에 增廣文科 丙科에서 급제하여 憲宗5年(1839)에 忠淸左道 暗行御史가 되었다. 그 뒤에 弘文館·藝文館의 提學을 역임하였고, 哲宗 7年(1856)에는 大司成을 거쳐 1858년에 刑曹判書에까지 올랐다. 이듬해 水原府 留守를 지냈고, 哲宗 11年(1860)에는 陳賀兼 謝恩使로 淸나라에 다녀왔으며, 高宗 元年(1864)에는 右議政에까지 올랐다. 저서로는 《紫閣謾稿》, 《右相任百經日錄》 등이 있다.

25) 《朝鮮實錄》 哲宗 11年(1860) 윤3월 30일조에 수록된 첫 번째 기사에서 “사과한 진하 겸 사은사를 소견하다(召見陳賀兼謝恩使[正使 任百經, 副使 朴齊寅, 書狀官 李後善], 辭陞).”라고 적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枕泉’은 李後善(1813-?)의 別號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선은 자가 希賢으로, 哲宗 7年(1856) 丙辰 別試 甲科에서 壯元하였고, 高宗 3年(1866)에는 全羅左道 濟州牧使를 지낸 바 있다.

26)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1860년 7월에 天津을 점령하였고, 8월에 수도인 北京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27) 程恭壽(생졸년 未詳): 자는 容伯이고, 호는 人海이며, 室名은 坐春風館이다. 浙江 錢塘(지금의 杭州) 사람이다. 道光 19年(1839)에 舉人이 되었고, 이후에

七月初一日²⁸⁾

【역문】

소정(邵亭) 인형(仁兄) 대인께 올립니다.

정월달에 편지글과 더불어 명주, 벼루, 차, 붓 등의 네 가지 선물 및 수시(壽詩) 네 폭을 조(趙) 씨를 통해 모두 가져다드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이미 받아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어제는 보내신 편지를 받아 읽으며, 이침천(李枕泉) 학사와 누차 손을 맞잡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대인께서 산수 경관을 굽어보며, 공무를 마치고 집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등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둘째 조카가 서당에 들어간 후 수재(秀才)로 선발되었다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진사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집안의 학맥을 이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셋째 조카도 마땅히 더욱 공부에 정진해야겠지요. 넷째 조카는 예쁘게 웃는다 했는데 이제는 웅알웅알 말을 배우고 있겠군요.

대저(大著)를 배독하였습니다. 이공(李公: 李伯衡)과 섭공(葉公: 葉名灃)을 위한 제문(祭文)은 진지하고 비통하여 미처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현(稼軒: 吳昆山) 대형에게 화답한 두 편의 시문은 마치 돌아가신 윤신(潤臣: 葉名灃) 대형을 당장이라도 불러낼 것만 같았습니다. 대형께서 정이 깊으시기에 이처럼 인정이 넘치고 그 뜻이 돈독한 것입니다. 제가 부쳐달라고 맡겼던 두 통의 편지는 가현 대형이 청강(淸江) 땅으로 갖고 갔는데, 금년 정월과 2월 사이에 만나본 후로 청강 일대가 태평천국의 무리에게 함락되는 바람에 또 어디로 휩쓸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교(午橋:

光祿寺少卿에까지 올랐다. 그의 저서로는 《坐春風館筆記》가 있다.

- 28) [제1신]의 첫 단락에서는 “정월에 보낸 편지와 명주, 벼루, 차, 붓 네 가지 물건과 수시 네 폭을 조 씨를 통해 모두 가져다드리라고 당부했었는데, 이미 받아보셨는지요.”라고 하였고, 정공수 본인이 1860년 정월에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제3신]에서는 “사천 지역의 가정주 한 단, 운남지역의 광연 한 개, 제고향 항주지역의 용정차 두 병과 호필 열 자루를 보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두 내용은 서로 같은 사건을 적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제1신]과 [제3신]은 모두 1860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張丙炎) 대형은 양주(揚州) 사람으로 이미 사관(詞館)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는 오직 정로(汀鷺: 楊傳第) 대형 한 사람 뿐인데, 남궁[禮部]에서 시행한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후에 하동하도총독(河東河道總督)인 신농(莘農: 黃贊湯) 대인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가헌 대형 앞으로 쓰신 편지는 우선 정로 대형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듣자하니 진소언(陳少言) 대형은 이미 경성을 떠났다고 합니다. 몽소(夢韶: 李伯衡) 대형의 장남인 문원(文源)은 호가 심전(心傳)입니다. 예전에 호부낭중(戶部郎中)의 직책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미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호부관찰(戶部觀察)로 발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와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나이와 관직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몽소 대형의 집은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몽소 대형의 부친은 저의 선친과 같은 해에 과거 급제하였고, 저 역시 몽소 대형의 둘째 아우와 같은 해에 과거 급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몽소 대형이 세상을 떠셨을 때 제가 그분 댁에서 제사를 도우며 하루 종일 친척들에게 부고를 알렸던 것인데, 정작 그분의 자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언 대형에게 보내는 편지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가 왔을 때 전해주는 것이 낡겠습니다. 혜방(蕙舫: 翁學涵) 대형은 무고하게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갇힌 지 너댓 달째입니다. 지금 그간의 사정이 대략 이러하나, 혜방의 일을 애석해하며 원기(元氣)를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백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요. 상서(尙書)를 맡고 계신 용옹(蓉翁: 趙光) 대인께서도 굴레 쓴 망아지처럼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통에, 놀람 반 두려움 반 근심 반 걱정 반으로 부득이하게 이따금씩 휴가를 내시곤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내신 편지를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전에는 학교(鶴橋) 대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책과 부채, 시를 함께 보냈었는데, 청강 땅에서부터 길이 막혀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다더니 지금까지도 답신이 없습니다. 항주(杭州)는 함락된 후 바로 수복되었지만, 저희 집안에서만 희생된 사람이 셋이나 나왔습니다. 힐형(擘蘅: 吳受藻) 대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하여 집안에 큰 변고는 없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통 소식이 없습니다. 요즘은 장차 고향 땅에 밀어다칠 변란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근심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제가 비록 관직에 몸담고 있지도 않으면서 한결음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일단 나라 밖으로 나간다면 해도 발 디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제 자식

들을 위해 윤신(潤臣: 葉名禮) 대형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린 자식들과 손자들을 바라보자니 눈물을 흐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답니까? 어째서 몇 년 뒤에 태어나지 않았답니까? 제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침천 대형에게 물어보시면 내막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윤신 대형의 맥에서 나누었던 필담을 제가 직접 적어 그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원래 있었던 발어(跋語)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수 일 전에 임하의(任荷漪), 이침천(李枕泉) 두 분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요 며칠 새 이곳 상황이 매우 나빠졌지만, 내일이면 사신들이 귀국길을 나선다니 다행입니다. 그편에 상아로 만든 자[牙尺] 하나와 떡 네 개, 양전(洋箋) 백스무 폭, 시전(詩箋) 한 묶음을 보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식은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천리 떨어진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랄뿐입니다. 삼가 답장을 올리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우 정공수(程恭壽)가 배상
칠월 초하루

2.2 第二信

邵亭仁兄大人閣下

己未三月五日²⁹⁾奉寧遠衛³⁰⁾手示短幅, 作答交廣盛³¹⁾于姓寄上. 十一月十四日又接來書, 旋交廣盛焦姓寄去, 復函並蓉舫·蕙舫兩信, “春樹奇緣”小印一方, 均□³²⁾青鑿否? 至遼陽³³⁾寄章, 經年未見, 想已浮沉, 王明府竟作洪喬故事³⁴⁾矣!

29) 己未年은 咸豐 9년(1859)으로, 바로 金永爵이 사행을 마치고 燕行으로부터 귀국한 때이다.

30) 寧遠衛: 지금의 遼寧省 興城市에 있는 古城으로, 明 宣德3年(1428)에 처음 축조하여 寧遠衛城이라고 하였다가 清代에 들어와 重修하고 그 명칭을 寧遠州城으로 바꾸었다.

31) 廣盛: 북경 성 외곽에 위치한 조선사절단의 관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대 이후 본래 조선과 인삼을 무역하기 위해 廣盛人蔘局(또는 天泰人蔘局)을 만들었는데, 조선 사신들이 사행하여 주로 이곳에 묵었다고 한다.

32) ‘□’은 ‘塵’으로 보인다.

臘鼓頻催，使者適館，而人海隱居，未見先生一字，引頸東望，目極雲天。

上元³⁵⁾前始拜奉寄書，未及開緘，狂喜欲脫，再三批誦，垂念眷眷之情溢於楮表，千里之隔，一心相同，有如此矣！每誦吾兄“四海茫茫知己少”之句，竊歎我兩人何聚少而離多耶！執事參黃樞密之後，兼尹畿甸，雖東山之志³⁶⁾始終不渝，而籌畫賢助，恐雅尚清吟，不無少減，春韶新麗，餐衛惟宜。想公退時與道園侄題糕況餅³⁷⁾，顧少子嬉戲爲樂，簪纓況味，與裙屐風流。所謂清才濃福，兩無妨也。夏五爲兄嫂夫人六十壽辰，弟不克奉觴介祉，謹賦拙詩三章，書屏四幅，以侑壽卮，并請削政。弟又逢改歲彌警，蹉跎海內，繹騷中朝，亦無可插脚。索居眇歡，亂我心曲。年前爲次子卓山娶婦于張，卽詩船尙書³⁸⁾之女。詩翁主持風雅幾五十年，其〈除夕〉詩云“亂歲添嬌客”者，此耳。弟則□□³⁹⁾了完向平⁴⁰⁾心願而已，惟周晬小孫于花下燈前抱之，差強人意。

京師冬春無雪，間日風作，故里湖山，徒存夢想。所盼閣下踏階一品，奉使重來，執手話舊，庶幾快然。承賜韋注《國語》，校刊精粹，似影宋本，極可珍貴。

33) 遼陽: 지금의 遼寧省 遼陽에 위치한 古城을 가리킨다.

34) 洪喬故事: 中國 晉代의 豫章太守였던 殷羨(字는 洪喬)은 임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같은 고향 사람들이 편지를 고향 가족들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부탁받은 것만 백 여 통에 이르렀다. 은선은 石頭渚라는 곳에 이르러 이 편지들을 모두 강물에 버렸다. 후세에는 이 고사를 통해 보낸 편지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을 비유하였다.

35) 上元: 음력 정월 십오일을 上元節 또는 元宵節이라고 한다.

36) 東山之志: 山水에 隱居하고자 하는 뜻을 의미한다.

37) 題糕: 重陽節에 시를 짓는 것을 가리킨다.

38) 張祥河(?-1862): 본명은 公藩이고, 자는 元卿이며, 호는 詩船 또는 鶴在이다. 淸松江府 婁縣 사람으로, 張照(1691-1745)의 從孫이다. 詩文과 書畫·篆刻 등에 능하였으며, 《大清會典》의 插圖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嘉慶25年(1820)에 進士가 되어 內閣中書를 제수 받았고, 河南按察使와 廣西布政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 후 陝西巡撫가 되어 西安·同州 일대 ‘刀會’ 활동을 진압했으며, 太平天國軍이 陝西로 진격하자 太平天國軍과 그 지지자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기도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小重山房初稿》, 《詩船詩錄》, 《詩船詩外錄》, 《小重山房詩續錄》, 《詩船詞錄》 등이 있다. 諡號는 溫和이다.

39) ‘□□’은 ‘徐徐’ 또는 ‘餘餘’인 것으로 보인다.

40) 向平: 東漢의 高士인 向長(字가 子平)을 가리킨다. 그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산수에 몸을 맡겨 은일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식들의 婚事를 다 마치고 나자 곧바로 五嶽 名山을 유람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佳紙梳扇，一并拜嘉，感謝無似。寄去四川嘉定綢一端，廣硯一方，吾杭龍井茶兩瓶，湖筆⁴¹⁾十管，豈敢云報，借達寸忱，區區鴻毛，殊以爲媿。廠肆近日硯材偶新產有古人銘識者，□⁴²⁾多僞作，俟覓得佳品，再行鐫銘續寄。龍井在吾里城西西湖之南山，鄉人來，問以所產茗相饋遺，淪以名園中石竇乳泉何如？但吾鄉都用沸水沃之，不用古人煎茶法也，以其味薄耳。

吳擷衡由教習用知縣，于上年九月還杭，寄書及梳扇，適有便鴻，已附寄。鶴僑升擢兩淮轉運使，移住江南之泰州，其地非衝衢，寄書及詩韻摺扇，俟有便即寄。潤臣鶴化，尚不知其郎君⁴³⁾流寓杭州，抑還漢陽⁴⁴⁾矣。虎坊橋屋⁴⁵⁾爲曾姓所居，“他人入室”之吟，可勝慨耶。

長者賜書格言一冊，示大侄怡山，並屏二·扇書一，怡山珍若球璧，舞蹈感激，莫能名狀。此後音書，想須至頒朔⁴⁶⁾時方能奉到也。臨穎依依，情懷無限，伏惟珍重，即請雙安。祈亮督不莊。諸侄均此道念問好。

庚申正月二十有五日

右上

邵亭 仁兄閣下

愚弟 程恭壽 頓首

【역문】

소정 대인께서 기미년(1859) 삼월 오일에 영원위(寧遠衛)에서 보내신 짧은 친필 서한을 받고, 답장을 적어 귀국의 관소에서 일하는 우(于)씨를 통해 보내드렸습니다. 십일월 십사일에는 재차 편지를 받고, 초(焦)씨를 통해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답장과 함께 용방(蓉舫: 趙光), 혜방(蕙舫: 徐天然)

41) 湖筆: 湖筆은 浙江 吳興縣 善璉鎮에서 생산된 붓을 가리킨다.
 42) ‘□’은 ‘率’로 보인다.
 43) 郎君: 상대방 또는 다른 집안의 자제를 의미하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李伯衡의 장남인 李文源을 가리킨다.
 44) 漢陽: 지금의 湖北省 武漢市 서남부 일대를 가리킨다.
 45) 虎坊橋: 潤臣(葉名澧)의 자택이 소재한 곳이다.
 46) 頒朔: 황제가 매년 동짓달에 주변 국가와 제후들에게 다음 해의 달력을頒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 앞으로 쓴 편지 두 통과 “춘수기연(春樹奇緣)”이라고 새긴 소인(小印) 하나를 모두 받아 보셨는지요? 요양(遼陽)에 도착하여 보내셨다던 편지는 일 년이 지나도록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필시 홍교(洪喬)의 고사처럼 왕명부(王明府)에서 유실된 것 같습니다.

소란한 납고(臘鼓) 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신 행렬이 객관에 도착했건만, 맑은 인파가 몰리는 통에 선생의 글씨를 한 자도 보지 못하다가, 떠나신 뒤에야 목 늘어 동녘을 바라보노라니 하늘가에 수놓은 구름들만 두 눈에 아련했습니다. 그 후 정월 보름 전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음에, 미처 뜯어보기도 전에 미칠 듯이 기뻐했습니다. 거듭 읽어 보니 절절한 심정이 편지 위로 넘쳐 났습니다. 천리 밖에 떨어져 있건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처럼 한결 같았습니다. 매번 대형께서 “망망한 사해에 나를 알아주는 이는 적구나!”라고 하신 구절을 읊조리며, 우리 두 사람이 어찌하여 잠시 함께 만났다가 긴 이별을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하고 한탄을 합니다.

대형께서 조정 내 중추 기관의 일을 관장하시다가 또다시 경기 지역으로 부임하게 되셨다니 비록 은거하려는 뜻에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으시겠지만, 정사를 기획하고 돕다보면 아무래도 고상한 시구를 지으실 기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봄날 경치가 산뜻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음식과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대형께서 퇴청하시어 도원(道園: 金弘集) 조카님과 중앙절에 시를 쓰고, 막내아드님이 장난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셨다니, 이는 귀인(貴人)의 정취이자 귀한 집 자제의 풍류요 뛰어난 재주이자 크나큰 복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월 여름에 형수님께서 회갑을 맞으시는데도 이 아우가 술잔 들어 만수무강을 축원드릴 수 없음에, 보잘 것 없는 수시(壽詩) 세 수와 서병(書屏) 네 폭으로써 축배를 대신하고 아울러 절정을 청합니다.

저는 또 해가 바깥에 더욱 경계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라 안은 쇠퇴하고 조정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외파로 살다보니 기뻐할 일도 없어 제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에 둘째 아들 탁산(卓山)에게 장(張)씨네 여식을 아내로 맞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상서(尙書)직책을 맡고 있는 시령(詩齡: 張祥河) 선생의 여식입니다. 시령 선생께서는 근 오십 년간 시[風雅]를 지어 오셨습니다. 그 분이 <제석(除夕)>이라는 시에서 ‘난세에 사위를 보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일을 두고

일컬은 것입니다. 저는 서서히 동한(東漢) 시기의 고사(高士)였던 상장(向長)이란 사람이 그랬듯이 서서히 자식들의 혼사를 다 치루고 홀로 한가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돌이 다된 어린 손자를 화하등(花下燈) 아래에서 안고 있노라면, 그런대로 마음이 흡족합니다.

북경성에는 겨울과 봄 사이에 눈은 내리지 않고 하루걸러 바람만 불어대니, 고향산천에 대한 부질없는 그리움이 더합니다. 바라옵건대 대형께서 승직하여 다시금 사신으로 와, 저와 손을 맞잡고 옛 일을 술회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보내주신 물건들 가운데 위소(韋昭)가 주석을 달아놓은 《국어(國語)》는 교감과 인쇄 상태가 정밀하고 뛰어난 것이 송대의 판본을 복각(覆刻)한 듯한데, 대단히 진귀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종이, 빛과 부채도 함께 보내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천(四川)지역의 가정주(嘉定綱) 한 단, 운남(雲南)지역의 광연(廣硯) 한 개, 제 고향 항주(杭州)지역의 용정차(龍井茶) 두 병과 호필(湖筆) 열 자루를 보냅니다. 어찌 감히 보답이라 하겠습니까만, 이를 통해 자그마한 성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보잘 것 없는 물건이라 매우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 유리창(琉璃廠) 일대에는 벼루 위에 고인(古人)의 문구를 새겨 넣은 것들이 새삼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짜 골동품이 많이 뒤섞여 있으니 좋은 물건을 찾는 대로 다시 글귀를 새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정(龍井)이란 곳은 제 고향 항주성 서쪽에 있는 서호(西湖) 주변의 남산(南山)이란 곳에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올라오면 가끔씩 새로 생산된 차잎을 선물합니다. 이름난 정원의 바위틈에서 나오는 감로수로 차를 우려냄이 어떠하신지요? 다만 저희 고향에서는 모두들 끓인 물을 차잎에 부어 우려낼 뿐, 옛 사람들이 차잎을 달여 내던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이 은은하답니다.

힐형 대형은 교습(敎習)이란 관직을 거쳐 지현(知縣)으로 임용되었다가 지난해 9월에 항주로 돌아왔는데, 이때 대형께서 보내신 편지와 빛, 그리고 부채를 제 편지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학교(鶴橋) 대형은 양회전운사(兩淮轉運使)로 승진하여 강남 태주(泰州)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은 교통이 좋지 않으니, 대형께서 보내신 편지와 시, 접선은 인편이 있는 대로 바로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 대형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자제(子弟)가 항주에 체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양(漢陽)으로 돌아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호방교(虎坊橋)에 있던 그의 집에 지금은 증(曾)씨가 살고 있

으니 “타인이 집에 들어와 산다(他人入室)”라는 시구에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형께서 보내주신 격언집 한 책을 큰조카 이산(怡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병풍 두 개와 선지(扇紙) 위에 쓴 글씨 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산은 진귀한 보물을 만난 듯 소중히 여기며 감격해서 춤을 추었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번 편지는 모름지기 반삭(頒朔)할 때 즘음에나 당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붓을 내려놓기가 아쉽고, 대형을 그리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옥체保重하시길 기원하며, 부모님 두 분께도 문후 여쭙습니다. 두서없이 적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카들께도 이 편지글을 통해 안부 전합니다.

경신년(1860) 정월 이십오일, 소정 인형 각하께 아우 정공수가 돈수합니다.

2.3 第三信

<再疊前韻兼以送別>

朝衫幾日拂征塵，又唱驪歌非去賓。
肝膽既能忘楚越，山河無礙隔齊秦。
井蛙我愧謾天小，梧鳳⁴⁷⁾君爲命世珍。
多祝陽和際祖道，好看霖柳渡江新。
書奉邵翁先生晒正
少言翰 未定艸

【역문】

<앞 시의 운(韻)을 좇아 재차 화답하여, 송별하다>
사행 여정 내내 입었던 조복(朝服) 위의 흙먼지 털던 사람도

47) 梧鳳: ‘梧鳳之鳴’에서 나온 말로서 원래 오동나무 위에서 鳳凰이 울어대는 것을 가리키는데, 흔히 이를 太平盛世를 비유하기도 한다.

또다시 행차의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대가 아니던가
 마음속에 능히 저 멀리 초(楚)와 월(越)을 잊었나니
 산하는 제(齊)와 진(秦)을 갈라놓을 수 없으리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나는 부끄럽게도 하늘이 작다고만 했소만
 오봉 같은 그대는 크나큰 임무 받들어 세상의 값진 보배 되셨구려
 多福한 봄기운이 송별연의 자리에 미치나니
 아름다운 매화와 버들은 강 너머에 새롭게 피어나리라

시를 적어 소옹선생의 질정을 받고자 합니다.
 소언(少言) 진한(陳翰)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시고(詩稿)를 보내 드립니다.

2.4 第四信

<奉和原韻>

憶昨叨陪接塵塵, 幾蒙下顧託龍賓.
 奇文粵巧搜班馬, 健筆崢嶸逼漢章.
 輔國久傳樑棟器, 奉朝屢選廊廟珍.
 君家自有封侯典, 聖主恩如雨露新.

【역문】

<원운(原韻)에 맞추어 화답하다>

어제 그대를 모시고 대좌할 때에
 좋은 먹[龍賓]을 구하고자 누차 부탁하시더니
 뛰어난 문장 기교는 반고(班固)와 사마천(司馬遷)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
 을 듯하고

웅건한 필력은 한대(漢代)의 문장에 다다르셨네
 국사(國事)를 보필하는 큰 인물로 명망 자자하시더니
 연행 행렬에 누차 조정의 보배로운 인물로 선발되셨고
 그대 집안은 예로부터 혁혁한 공업(功業)을 쌓았으니

우로(雨露)같은 성군의 은혜를 새로이 입으시리라

2.5. 第五信

<奉覆再疊前韻用申歉仄⁴⁸⁾>

渭北江東別緒綿, 卅年音問最蟬連.

寄梅⁴⁹⁾驛使爭先到, 報竹⁵⁰⁾郵筒悵未傳.

多感深情憐雁序 【公詩有“瓠歌⁵¹⁾應和看雲句”語】 , 那堪新歲肇龍躔⁵²⁾.

瓠歌賦罷歸來日, 應許乘槎問海仙.

錄呈邵翁先生卽席斧削

子廉銜⁵³⁾拜藁

【역문】

<앞 시의 운(韻)에 좇아 재차 화답하여, 미안한 심정을 표하다>

위수와 장강이 북으로 동으로 각기 면면히 흐르듯

삼십 년 동안 안부편지 이어져왔건만

벗이 보낸 안부 편지 앞 다투어 당도하는데

48) 歉仄: 미안하다는 의미이다.

49) 寄梅: 梅花를 보낸다는 말로,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부를 전하는 것을 뜻한다.

50) 報竹: 가족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뜻하는 말이다. 唐代 段成式的 《酉陽雜俎續集·支植下》: “衛公(李德裕)言北都惟童子寺有竹一窠, 纔長數尺, 相傳其寺綱維, 每日報竹平安.”

51) <瓠子歌>: 漢 武帝가 지은 樂府歌辭 중의 하나이다. 무제 때 黃河水가 지금의 河南 濮陽에 있는 瓠子의 뚝을 터뜨리자, 汲黯과 鄭當時를 시켜서 터진 곳을 메우게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뒤에 무제가 사망에 가 封禪한 뒤에 친히 이곳으로 와 汲仁과 郭昌을 시켜 군사 수만 명을 징발하여 이를 메우게 하였고 마침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에 무제는 <瓠子歌>를 짓고, 이곳에다가 宣房宮을 세웠다.

52) 龍躔: 帝皇가 반포한 역법으로, 새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53) 子廉銜: 이 詩箋을 쓴 사람의 姓氏는 未詳이다.

고향 소식 전하는 편지 오지 않아 한탄스럽네
고향 형제들 향한 깊은 그리움 속에

【공의 시에 “호가(瓠歌)’는 ‘간운(看雲)’이라는 시구에 화답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새해에는 어이 견뎌낼까?
<호가(瓠歌)>를 부르고 돌아가는 날에는
뗏목 타고 해선(海仙)에게 길을 물어도 되리라

소옹(邵翁: 金永爵) 선생이 즉석에서 수정해 주신 것을 적어 올립니다.
자렴(子廉) 함(銜)이 절하고 씀

2.6 第六信

<奉和原韻志謝兼以贈別>

瑤章飛下語纏綿，一朵雲書⁵⁴一字連。【承賜詩幅。】

海國詞宗推老輩，金天⁵⁵世系溯眞傳。

朝王好辟重來路，奉使難留欲去躔。

恰喜丹砂投粒粒，換將凡骨待詩仙。【前惠丸藥各種。】

【추신】 公去冬有寄家兄函札，適奉命視河，久未……

【역문】

<원운(原韻)에 맞추어 화답하여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증별(贈別)하다>

날아든 편지 속에 담긴 말들이 친근하고

전자(篆字)로 내려쓴 시구는 하나의 운자(韻字)로 이어지네 【보내주신 시문을 받았습니다.】

해동에서 시문의 큰 인물로 그대를 추천하니

54) 雲書: 篆字의 필획이 구름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5) 金天: 古帝 少昊를 가리킨다.

소호(少昊)의 세계(世系)를 좇아 직계를 거슬러 올라가도다
 천자를 조희코자 다시금 오셨건만
 사신의 발걸음 붙잡을 수 없어 떠나보내려 하네
 마침 단사를 좋아한다하여 알알이 선물하시니
 범인(凡人)을 시선(詩仙)으로 대해 주시었구려 【지난번에 각종 환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추신 역문】 대형께서 작년 겨울에 제 형에게 서찰을 보내셨는데, 마침 명을 받들어 황하를 순시하느라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2.7 第七信

自接光範, 雅愛屢承. 本擬躬謁崇墀面謝, 緣館以出入不便, 未克竭誠, 歉甚歉甚.

茲際紅舒杏萼, 綠上楊枝, 伏諗邵翁老先生佳善勝常, 升忙茂介如祝爲慰. 承賜佳章, 過蒙推獎, 慚謝何如. 謹布原韻錄呈, 語句粗陋, 殊不堪供方家一哂也. 再二次發函, 前已詢催, 因月內摺卷乏便, 尙無回音. 行期約在仲春之初, 屆時恐未能遞到. 起縈錦注, 謹以附安. 肅此, 敬頌台安, 統希丙鑒. 不備.

子廉銜, 少巖翰 仝頓啓

【추신】 閑翻貝葉⁵⁶⁾學經師⁵⁷⁾, 萬里新……

【역문】

인사드린 이후로 누차 아애(雅愛)해 주심을 입었습니다. 본래 직접 찾아 뵙고 감사말씀을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고 계신 객사를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 성의를 다 표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56) 貝葉: 본래 고대 인도에서 불경을 적기 위해 사용한 패다라니 잎을 가리키며, 이후에는 불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7) 經師: 불교 경문(經文)을 가르치는 법사를 가리킨다.

송구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살구나무 꽃받침 위로 붉은 빛이 돌고, 버드나무 가지에는 푸른빛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소정 선생께서 평안히 한가롭게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보내신 편지글에서 과분하게 칭찬해주시니,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지난번에 보내주신 시의 운을 좇아 화답합니다. 시어가 조잡하고 비루하여 식견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만 같습니다. 거듭 두 차례나 편지를 보내 일전에 이미 일처리를 서둘러달라고 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는 상주(上奏)하기가 불편해서인지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사행 일정이 대략 이월 초가 될 듯한데, 어쩌면 그때가 되어도 당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것 같아 삼가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드립니다. 평안하시길 바라며 삼가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자렘과 소암이 함께 돈수하고 올림

【추신 역문】 한가로이 불경[貝葉經]을 읽으며 경사(經師)에게 배우니, 만 리 새로운……

2.8 第八信

邵亭留守大人閣下

上年重入都門，容伯備道垂念勲拳，感佩無似。今正三十日，甫接手教，并賜佳什，開緘三複，如親笑言。次日正擬裁箋，聞使節東發，深歎深歎。昨又從容伯處得悉，新恩寵被，簡任彌隆，比維道履⁵⁸攸綏，式如臆頌。崧陽⁵⁹距王城⁶⁰百六十里，未識公餘之暇，能復如舊廬之臥湖⁶¹上，對接手卷否？

朱閣學⁶²名蘭⁶³，己丑探花⁶⁴，與涵爲中表行，頗講道學，然遇事執拗，居鄉

58) 道履: 道況과 같은 의미로서, 道學을 연구하는 학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59) 嵩陽: 경기도 개성 일대를 가리킨다.

60) 王城: 조선의 도읍인 한양을 가리킨다.

61) 臥湖: 장병염은 《邵亭詩稿》의 跋文에서 “嘗一罷官歸臥蓉江之上，構水木清華園，居其中”이라고 한 것에 의하면 臥湖는 김영작의 집 근처에 있던 臥蓉江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時因公被議降調，今起用，升正詹，放安徽學政，尙無著述。和圃爲人，大不如乃翁。前兩寄信而不得一複，甚不可解。獨鶴僑已升安徽撫，曩承將助，致足感也。

涵自遭厄後，贖緩歸田，甫三月而賊陷姚江⁶⁵，其間險阻艱難，備嘗之矣。去秋選在戶部，大司農⁶⁶寶佩衡⁶⁷爲丁酉同年，頗加優禮，現派山東司主稿⁶⁸，兼管捐納⁶⁹。房下族親審處公事繁劇，以家無可歸，不得不強顏作馮婦⁷⁰。自覺精力頓減，須白齒落，更未卜何日出山耳。敝眷已于去夏航海來京，兒子甬生已四歲，頑骨天成，可望長大。此則五年來之差堪自慰者也。⁷¹ 前泐數行，複頌台安，

62) 閣學: 清代的 官職名으로 內閣學士를 가리킨다.

63) 朱蘭(1800-1873): 字는 久香, 晩年の 號는 耐庵으로 浙江 餘姚 사람이다. 道光 9年(1829)에 探花로 과거에 급제하여 翰林院編修 등의 官職을 제수 받았고, 이후 御使, 廣東 正考官, 湖北 學政 등을 역임했다. 道光 19年(1839)에 연로한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낙향했다가 道光 28年(1848)에 原官으로 복직하여 少詹事와 講官을 역임하였으나, 조정의 이론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과직되었다. 咸豐 元年(1851)에 다시 기용되어 內閣學士가 되었고, 임시로 工部侍郎을 맡기도 했으나 같은 해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同治 元年(1862)에 다시 임용되어 官職이 內閣大學士에 이르렀다. 저서로 《補讀室詩文集》, 《師友言行錄》, 《孟晉錄》, 《群籍摭聞》 등이 있다.

64) 探花: 宋代 이후 殿試에서 3등을 차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65) 姚江: 浙江省 餘姚縣의 별칭이다.

66) 大司農: 元代 이후 農桑, 水利, 學校, 救荒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官職명이다. 여기에서는 戶部尙書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67) 佩衡: 청말 문인인 寶璽(1807-1891)의 자이다. 그는 索綽絡氏로 滿洲 鑲白旗에 속한 사람이며, 대대로 吉林에 거주하였다. 道光18年(1838)에 進士가 되어 禮部主事를 제수 받고 中允으로 발탁되었다. 咸豐 年間에는 內閣學士, 禮部右侍郎, 總管內務府大臣 등을 역임하였고, 同治 年間에는 軍機大臣上行走에 임명되어 總理各國事務大臣과 體仁閣大學士를 함께 맡았으며, 光緒 年間에는 武英殿大學士에까지 올랐다.

68) 主稿: 공무 문서 또는 기안을 작성하는 직책을 가리킨다.

69) 捐納: 돈이나 곡식으로 官職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70) 馮婦: 여기서 馮婦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孟子·盡心下》: “晉人有馮婦者, 善搏虎, 卒爲善士. 則之野, 有衆逐虎. 虎負嵎, 莫之敢撓. 望見馮婦, 趨而迎之; 馮婦攘臂下車. 衆皆悅之, 其爲士者笑之.”

71) [第9信]에서는 스스로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둘 두었는데 그 딸들이 모두 죽었다고 슬회하였는데, 본 서신에서는 아들이 4살이 되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하였다. 이에 본 서신은 [第9信]을 보낸 지 대략 5-6년 뒤에 작성

并賀大喜. 不莊不備.
小弟 翁學涵⁷²⁾ 頓首
三月二十日

【역문】

소정 유수 대인에게 올립니다.

지난해 도성에 다시 왔을 때, 대형께서 저를 위해 여러 모로 걱정하셨다고 용백(容伯: 程恭壽) 대형께서 상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비할 데가 없습니다. 금년 정월 삼십일이 돼서야 보내주신 편지와 시문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듭 펼쳐 읽어보니 마치 대인께서 바로 옆에서 환소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답장을 드리려 했으나, 사신들의 귀국행렬이 이미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됨에 그저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어제는 용백 대형으로부터 대형께서 새로이 나라의 은총을 입어 더 높은 관직에 오르고, 근자에 내내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 속 깊이 감축 드립니다. 송양(嵩陽)은 왕성(王城)에서 백육십 리가량 떨어져 있으니, 대형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예전에 기거했던 집 근처의 와호(臥湖)가에서 다시금 산수를 바라보며 시문을 주고받으심이 어떠하신지요?

각학(閣學)을 역임하고 있는 주란(朱蘭)은 기축(1829)년에 탐화(探花)로 과거에 합격한 인물로서, 저와는 외종지간입니다. 도학 사상의 깊은 이치를 중시하였기에 매사 고집스럽게 일을 처리하곤 하였는데, 고향에서 지낼 때 한번은 공론에 휘말리어 강등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 등용되어 정첨(正詹)의 자리에 올랐다가 안휘성(安徽省) 학정(學政)으로 나가 있는데, 아직 저서가 없습니다. 화보(和圃) 대형의 사람됨은 그의 부친에게 한참 못 미칩니다. 일전에 두 차례나 편지를 보냈으나 답신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鶴橋) 대형만 이미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2) 翁學涵(생몰년 未詳): 그의 저술로는 咸豐 3年(1853)에 翁學濬과 함께 편찬하고 간행한 統宗堂 목활자본 《餘姚東門翁氏家乘》이 있다.

안휘성(安徽省) 순무(巡撫)의 직책으로 승직하셨는데, 일전에 도움을 주신 적이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공무상의 곤액을 당한 후로 그 죄에 대한 벌금을 치르고 낙향하게 되었는데, 석 달 만에 태평천국의 난적들이 요강(姚江) 지역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호부(戶部)에 발탁 되었을 때, 대사농(大司農)의 자리에 있던 보패형(寶佩衡·寶鑿) 대형이 정유년(1837)에 함께 과거 급제한 사이라 각별히 환대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산둥(山東) 지역에 파견되어 주고(主稿)와 연납(捐納)의 임무를 함께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의 친척들을 위해 처리해 주어야 할 일들이 거듭 일어나는 통에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으니 부득이 또다시 무모한 일에 뛰어드는 풍부(馮婦)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갑자기 쇠약해짐이 느껴지더니, 수영이 하얗게 세고 이빨이 빠져 언제 또 관직에 나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제 가족은 이미 작년 여름에 배를 타고 경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용(甬)은 벌써 네 살이 되었는데, 강건한 골격을 타고난 것이 키가 제법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만이 지난 오년 간 그럭저럭 위안 삼을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몇 줄 적어 두루 평안하시기를 거듭 축원 드리고 아울러 경사스러운 일들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우 옹학함(翁學涵) 올림
삼월 이십일

2.9 第九信

邵亭侍郎先生閣下

春初奉到華箋，具初綺注，時值趕辦納贖，未惶裁畚。然稔政事清簡，興居曼福，快慰奚如。嗣崙信⁷³至遼，知曉山已歸道山⁷⁴，乃郎⁷⁵述及閣下曾兩次交寄惠書，忙亂中不知夾雜何所，未獲展誦。涵不才，辱承大君子雅愛，以久羈獄中爲

73) 崙信: 특별히 보낸 편지라는 의미이다.

74) 道山: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한다.

75) 乃郎: 다른 사람의 아들에 대한 敬稱이다.

念, 感荷感荷.

諒容伯已詳述一切. 自問平生光明磊落, 事無不可對人言者, 乃權奸必欲傾陷, 刑員爲其授意, 舞文周納, 竟遣軍台⁷⁶). 蒙諸友親湊助二千餘金, 得以捐免, 不致老死異域, 幸已. 今天下干戈搶攘, 生民塗炭, 居顯要者但以逢迎爲事, 不顧大局. 如涵微官曾何足戀. 所可怪者, 涵年餘五旬, 膝下無子, 僅存兩女, 皆已及笄, 去春冬間相繼亡故. 天之厄我, 何其虐哉!

南歸之路梗阻, 事了後, 鬱鬱居此者又三月矣. 現聞沿途尚可避凶趨吉, 遂決計起程. 從此終老林泉, 脫然無累, 尤不幸中之幸也. 賤軀稍適, 惟鬚髮半白, 齒牙動搖, 頓形老態耳. 暮雲春樹⁷⁷), 良觀無由, 倚裝書此, 識謝高誼. 留交容伯, 俟後便寄複. 籍頌台安, 伏希亮督.

餘姚 布衣 翁學涵 拜手狀
四月 十三日

【역문】

소정 사랑 선생께 올립니다.

초봄에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를 염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마침 죄를 뒤집어쓰고 황급히 이에 대한 벌금을 치르던 터라 미처 답장을 쓸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공사(公事)가 순탄하며,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매우 기쁘고 안심됩니다. 그 후 특별히 보내주신 편지가 요(遼) 땅에 도착한 후에야 효산(曉山) 대형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께서 두 차례에 걸쳐 부치셨다는 편지들은 단가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디에 섞여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함에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주도 없으면서 대형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왔거늘, 또 제가 오랫동안 옥살이 하고 있음을 염려해

76) 軍臺: 淸나라 때 新疆과 蒙古 서북쪽의 두 길에 설치했던 역참으로 군사보고나 공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77) 暮雲春樹: 杜甫 <春日憶李白>의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 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에서 따온 말로서, 멀리 있는 다정한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용백(정공수) 대형이 이미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으리라 사료됩니다. 평생 사심 없이 광명정대하게 살아왔는지 혹여 남에게 말 못할 일을 저지르거나 았았는지 자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간악한 무리들이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였고, 형벌을 집행하는 관원들도 자기들 맘대로 죄상을 날조하여 죄를 덮어씌워 저를 서북지역 외딴 변방 역참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벗들과 친척들이 이천여 전(錢)을 모아 저를 도와준 덕에 죄를 감면받아 이역 땅에서 늙어 죽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스러운 뿐입니다. 지금 천하는 전란으로 온통 소란스럽고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있건만, 높은 요직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은 그저 아침만 일삼을 뿐 전체적인 형국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한들 저 같은 말단 관리가 어찌 마음에 둘 수 있겠습니까?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제 나이 오십이 넘도록 슬하에 아들도 없이 딸만 둘을 두어, 둘 다 이미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그만 작년 봄과 겨울에 연달아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내린 재앙이 어찌 그토록 가혹하단 말입니까?

남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통에, 난리가 끝난 뒤로도 우울하게 이곳에서 거처한 지가 삼 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길을 따라 가면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하기에 마침내 길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속세를 떠나 은거하며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몸은 좀 편하다고 하겠지만 수염과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고 이빨이 흔들리는 것이 어느덧 늙은이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는 터라, 길 떠나기에 앞서 이 편지글을 적어 두터운 우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우선 편지를 용백 대형에게 전해달라고 맡겨, 나중에 인편이 있을 때 다시 보내게끔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여요(餘姚)에서 포의(布衣) 옹학함(翁學涵)이 절하고 올림
사월 십삼일

2.10 第十信⁷⁸⁾

孟春坻貢使便，交李小漢祖永⁷⁹奉塵一函并家嚴書札，亮均達覽。頃得手箋，籍悉新政清明，執事留守舊京，渥膺屏翰之寄，遠人逃聯，歡忭無量。丙炎翹望執事，卽充正使入都，一住渴緒，不知一二年內，能卽來否？丙炎杜門卻掃，侍奉康娛，足慰綺念。海秋⁸⁰日日把晤，稼軒有秋日來都之意，致足樂也。魯川⁸¹在皖，音問殊艱。坻呈摹刻《澄清堂帖》⁸²，當是潤臣所惠。又家嚴手書謙卦，因不甚愜意，春間未寄，今仍奉呈。肅復，并候道履。不宣。

丙炎 頓首

同治 甲子 餞春⁸³日

邵亭 留守先生 閣下

【역문】

음력 정월에 조공 사신을 통해 소미(小漢) 이조영(李祖永) 대형에게 맡겼던 저서 일 함(函)과 저의 부친이 쓰신 서찰을 모두 받아 보셨는지요. 방금 편지글을 통해 새로이 영전하시어, 대형께서 옛 도읍지였던 개성(開成) 땅에 유수(留守)로 부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중신께서 편지로 멀리 이역 땅의 벗에게까지 연락을 주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대형께서 정사(正使) 자격으로 북경성에 와 잠시 머무르시며 서로의 정회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한두 해 안으로 오실 수 있는지요?

78) 이 편지의 제1장 좌측에는 “金大人景龍席設水師”의 아홉 자가 적혀있다.
 79) 李祖永(생졸년 未詳): 조선 말기 문인으로, 小漢는 그의 별호이다.
 80) 海秋: 청말 문인인 劉惟金(생졸년 未詳)의 자이다. 그는 淸 咸豐연간에 舉人으로 선발되었으나, 그 후 행적은 未詳이다.
 81) 魯川: 청말 문인인 馮志沂(1814-1867)의 자이다. 그의 별호는 述仲이며, 본관은 山西 代縣이다. 道光 16년(1836)에 進士가 되어 刑部主事를 제수 받았으며, 이후 郎中에까지 올랐다. 특히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당시 ‘京都四才子’로 불렸고, 張穆, 朱琦, 曾國藩, 楊尙文, 董文燦, 邵懿辰 등과 교유하였다. 同治 5年(1866)에 安徽寧池道를 제수 받았고, 이듬해 4월에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 의복과 신발은 소박하였으나, 古書나 佳帖을 수집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의 저서로는 《徽尙齋詩集》, 《適適齋文集》, 《西兪山房集》 등이 있다.
 82) 《澄清堂帖》: 南宋 때에 중국 고대 書刻 자료를 모아 만든 탁본첩이다.
 83) 餞春: 봄이 저무는 것을 술잔 들어 아쉬워한다는 의미이다.

저는 문을 닫아걸고 손님을 사절한 채 편안히 음풍농월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추(海秋) 대형은 날마다 만나고 있고, 가헌(稼軒) 대형은 가을에 북경성에 오겠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노친(魯川) 대형은 안휘[皖] 땅에 있어서 연락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봉한 모각본(模刻本) 《징청당첩(澄清堂帖)》은 윤신(潤臣) 대형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 부친의 글씨는 정갈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난봄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에서야 보내드립니다. 삼가 답장을 써 안부 전해 올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병염(丙炎)이 돈수합니다.

동치 갑자년(1864) 저물어가는 봄날에
소정(邵亭) 유수 선생 각하

2.11 第十一信

今春先後交李小溪·李藕船⁸⁴帶呈二函，想均入覽。藕船在京僅一晤其面，其時先君⁸⁵已招恙矣。四月中旬遽遭大故，擗踊悲號，無所逮及，痛何如哉！頃於八月十二日扶匱南旋，(龜)卜宅兆。先公前刻《味眞閣詩》十二卷，板已燬於兵火，返里後擬並晚年所作，用付梓人，刻成再當呈鑒。海天東望，相隔更遙，私計今冬執事必有惠函來正，丙炎尙未入都，留此希臆倚裝學。承諸惟亮宥，伏祈珍攝。不宣。

弟 張丙炎 叩首 上

甲子八月初十日

84) 藕船: 조선 말기의 역관이자 문인이었던 李尙迪(1804-1865)의 호이다. 그의 자는 惠吉이고, 본관은 牛峰이다. 대대로 譯官을 지낸 집안 출신으로 벼슬이 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역관의 신분으로 12차례에 걸친 연행을 통해 청나라 문인들과 교류하며 명성을 얻었다. 저서로는 《恩誦堂集》 24권 외에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한 서신을 모아 엮은 《海隣尺素》 등이 있다.

85) 先君: 張丙炎의 부친인 張安保(1795-1864)을 가리킨다. 장안보의 자는 懷之이고, 호는 石樵, 叔雅, 潛翁이다. 본관은 江蘇 儀徵이다. 저서로는 《味眞閣詩集》이 있다.

【역문】

금년 봄에 소미(小漢) 이조영(李祖永)과 우선(藕船) 이상적(李尙籍) 두 사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냈었는데, 모두 받아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북경에서 우선(藕船)을 한 차례 만났었는데, 그때 이미 선친(先親)께서는 병환이 있으셨습니다. 사월 중순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도 미칠 수가 없으니 이 비통함을 어찌해야 할런지요! 팔월 십이일 즈음에 관을 들고 남녘 고향땅을 돌며 묘 자리를 정하고자 합니다. 선친께서 전에 간행하셨던 《미진각시(味眞閣詩)》 십이 권은 목판이 이미 전란 중에 화재로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만년에 쓰셨던 글들과 한데 추려 모아 각공(刻工)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판각이 완료되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쪽 바다를 바라보니 더욱 아득합니다. 올겨울 즈음이면 대형께서 필시 편지를 보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때 저는 북경성에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며 학문이나 마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장병염이 고개 숙이고 올림
갑자년(1864) 팔월 초열흘

2.12 第十二信

道園樞密大人執事

貴國使來京，奉到惠寄尊甫侍郎公詩集，並大著墓表⁸⁶⁾，籍悉執事秉鈞贊化，勛望崇隆，於綜理幾要之餘，誦述先芬，軫懷闔舊，不遺在遠，風義獨高。口誦心維，莫名欽跂。

曩在咸豐中，侍郎公使節入燕，與先公恪訂文字之好，其時廷璜方在繼祿。不數年而銜恤興悲，伶仃稽柱，勉自存立，猥承餘蔭，觀政秋曹。檢拾楮書，中有侍

86) 墓表: 高宗 29년(1892)에 金弘集은 부친 金永爵의 《邵亭詩稿》과 《邵亭文稿》를 모아 문집으로 엮고, 아울러 墓表를 부록하여 총 6卷 3冊으로 간행한 바 있다.

郎公贈詩二律·手札數通⁸⁷⁾, 當卽付裝爲卷, 而深以先文恪報章久佚, 戚戚於心. 今侍郎公集中幸獲附載, 得以鈔補先集⁸⁸⁾, 百朋之錫⁸⁹⁾, 何以喻之! 自愧庸愚, 未嫻吟詠, 而俯仰今昔, 抒循陳之, 哀慕景投, 紵⁹⁰⁾之前徽, 亦有不能已於言者, 謹賦七絕四章, 另牋呈教. 倘得附侍郎公集後藉傳姓名, 感且不朽矣, 茲於貴國使之歸也, 附上《先文恪公⁹¹⁾年譜》, 並敝族人《居易軒遺稿》⁹²⁾·《向湖村舍詩集》⁹³⁾, 仰祈鑒正, 時惠教言焉. 肅修蕪簡, 祇敬鈞祺. 臨池溯洄, 伏維鑑照.

昆明 趙廷璜⁹⁴⁾ 頓首

大清 光緒壬辰(1892) 重陽前日

-
- 87) 본 簡帖의 26엽에서 28엽까지의 내용은 전후 문맥상 23엽의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기에, 필자가 이를 校正하여 재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 88) 《邵亭詩稿》卷2에는 金永爵의 五言律詩 <奉和趙蓉舫尙書席上見惠之作次韻> 2首와 함께 趙光이 지은 五言律詩 <趙蓉舫尙書原作> 2首가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 89) 百朋: 朋은 옛날의 화폐단위로 백봉은 많은 액수, 많은 보배를 의미한다.
- 90) 紵: ‘縞紵’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縞紵’는 친구 사이의 선물 또는 두터운 우정을 의미한다.
- 91) 文恪公: 청말 문인인 趙光(1797-1865)을 가리킨다. 그의 호는 退庵이고, 시호는 文恪이며, 본관은 昆明이다. 光緒 16年(1890)에 그의 아들 趙廷璜이 《趙文恪公遺集》과 함께 《趙文恪公自訂年譜》를 간행한 바 있다.
- 92) 《居易軒遺稿》: 청말 문인인 趙炳龍의 저서로, 光緒 14年(1888)에 간행되었다.
- 93) 《向湖村舍詩集》: 청말 문인인 趙藩(1851-1927)의 저서이다. 趙藩의 자는 樾村 또는 介庵이고, 호는 蠖仙이다. 白族으로 본관은 雲南 劍川이다. 川南道 按察使를 지냈고 辛亥革命에도 참가했다. 1917년에는 雲貴總督 唐繼堯를 대표하여 廣州護法軍政府의 交通部長으로 부임했다가 1920년에 사직하고 雲南省圖書館 館長을 지냈다. 저서로는 《趙樾村詩選》, 《向湖村舍詩集》, 《向湖村舍雜著》 등이 있으며, 晩년에는 文化事業에 힘을 기울여 《雲南叢書》을 편찬하기도 했다.
- 94) 趙廷璜(1859-?): 字는 仲漁이고, 號는 二山 또는 慕青山孩이다. 본관은 貴州 遵義이다. 金永爵과 친분이 두터웠던 趙光의 아들이며, 金石과 篆書, 隸書 및 詩文에 두루 능하였다. 農民起義로 인해 鄉試가 취소되자 四川으로 건너가 지방 衙門에서 일하였다. 그 후 莫庭芝에게 性理學을 배웠고, 布政臨에게 包世臣의 書法을 전수받았다. 훗날 黔川軍에 들어가 軍功을 세워 知縣과 同知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慕耕草堂集》과 《新寧論蒙詩九章》 등이 있다.

【역문】

도원(道園: 金弘集) 추밀 대인께 올립니다.

귀국의 사신들이 북경성에 왔을 때, 대형께서 보내주신 춘부장 시랑공(侍郎公: 金永爵)의 시집과 묘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께서 정사를 행하고 백성을 교화함에 공적과 명망이 드높으시고, 정사에서 물러나서는 선조의 덕행을 담은 시문을 읊조리며, 멀리 있는 친구를 마다않고 소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봄에 지극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함풍(咸豐) 연간에 시랑공께서 사신 자격으로 연경(燕京)에 왔을 때 제 선친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으셨는데, 그 당시 저는 아직 포대기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되지 않아 선친이 돌아가시어, 저는 슬픈 심정을 안은 채 믿고 의지할 데도 없이 애써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선조의 음덕을 입어 추조(秋曹: 刑曹)에서 정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친의 유묵(遺墨)들을 살펴보니 그 가운데에는 시랑공께서 써주신 율시 두 수와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곧바로 책자로 만들었어야 했으나, 선친[文恪公]이 작성하신 답장이 오래전에 사라져 안타까워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시랑공의 문집에 덧붙여 기재된 내용을 통해 아버님의 문집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백봉(百朋)의 보배인들 어찌 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용렬하고 어리석어 아직 시문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만, 예전과 지금의 상황을 살펴 차례대로 풀어내고, 두 분의 미덕을 좇아 드러냄으로써 깊은 우정의 표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못 다한 말들을 칠언절구 네 수로 지어 별지(別紙)에 적어 보내니 절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랑공의 문집 끝이나 마 제 이름을 붙여 넣어 전할 수 있다면 길이길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신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 선친의 연보, 저의 문중 사람이 쓴 《거이현유고(居易軒遺稿)》와 《상호촌사시집(向湖村舍詩集)》을 함께 보내니 살펴 보시고 절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두서없는 글을 올리며, 하시는 일들이 순조로우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옛일을 회상하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中朝學士書翰錄》의 脫草 原文 및 校釋

곤명(昆明)에서 조정황(趙廷璜) 올림
대청 광서 임진년(1892) 중앙절 전날

〔別紙〕

情眞詞雅意纏綿, 中有先人贈答篇.
無福從容侍文讌, 回頭剛是我生年. 【廷璜以己未生.】

繞壁彷徨寄慨深, 玉河風雪發悲吟.
卽今時務尤難說, 察落荊高⁹⁵劍筑心.⁹⁶

手譚心畫重裝池, 茶熟香溫一展之.
中外因緣文字契, 闊應留與後人知. 【侍郎與先公筆談箋札合裝成卷.】

<瀧阡>一表視歐陽⁹⁷, 卿相門風世澤長.

可有閑情詠花月, 艱難時局要平章. 【議政亦工詩, 吳稼軒先生筆譚中已錄之.】

朝鮮金道園議政寄其先侍郎墓表並《邵亭詩集》, 中有己未歲與先父文恪贈答之篇, 感書於後, 郵乞議政教之.

昆明 趙廷璜 呈稿

〔별지 역문〕

진실한 감정과 고상한 말씀에 뜻이 깊다하였다니

95) 荊軻(?-BC 227): 중국 戰國 말기 衛나라 사람으로, 燕나라 태자인 丹의 부탁을 받고 진시황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96) 본 簡帖의 문맥상 제 24엽은 제 25엽의 뒤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필자가 교정하여 재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97) <瀧岡阡表>: 歐陽修가 부친의 묘에 세운 墓表인 <瀧岡阡表>를 말한다.

그 가운데 선인들 주고받은 시가 있었네
문연(文謙)에 모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으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때가 바로 내가 태어난 해였구려 【제(趙廷璜)가
기미년(1859)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벽 따라 서성이며 깊이 탄식하고
옥하관의 세찬 바람과 눈발에 슬픈 노래 부르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형세는 더욱 설명하기 어려울지니
칼 들고 나서는 형가(荊軻)를 축 두드리며 보내야 했던 고점리(高漸離)의
심정으로 헤아려보소

필담과 편지를 함께 표장(表裝)하여
차 우려 따스한 향기 퍼질 때 펼쳐보네
중외의 인연이 문자로 맺어졌으니
마땅히 남겨 후인들에게 알려야 하리라 【시랑과 대형 선친의 필담 서신
을 한데 묶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상강천표(滌岡阡表)>로 구양수(歐陽修)를 살펴보니
재상의 문풍이 남긴 은택이 길도다
한가로운 심정으로 꽃과 달을 노래해도 좋겠으나
어려운 시국이라 반드시 잘 헤아려 밝혀야 한다네 【의정 대형도 시를 잘
지으셨음에, 오가현 선생이 필담 속에 이미 그 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조선의 의정(議政)대신인 도원(道園) 김영작(金弘集) 대형께서 그 선친이
신 시랑공의 묘표와 《소정시집(邵亭詩集)》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기
미년에 제 선친 문각공과 주고받은 시가 있기에, 뒤에 느낀 바를 적고 의
정 대형께 서신으로 보내어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곤명에서 조정항 올림

2.13 第十三信

葭思⁹⁸⁾正切, 芝簡適頒. 【摺扇二柄收到, 謝謝. 筆札冊頁爲家叔⁹⁹⁾攜赴河間¹⁰⁰⁾, 一時未能錄出, 容再寄上.】 感藻飾之逾常, 撫蕪衷而茲¹⁰¹⁾愧. 敬維邵亭先生大人□迺春和, 蠶□夏火, 挹湖山之勝景, 寫觴詠之幽情. 拭目雲暉, 殷心露祝. 承示附子¹⁰²⁾以求之川中¹⁰³⁾者爲上品, 現今路途多梗, 容俟覓得時再爲寄上. 源春明珠守, 輾輾如恆, 幸京寓自家慈以次, 諸稱平善, 聊堪告慰耳. 專覆, 煩請邇安. 不備.

李文源 拜

【역문】

간절한 그리움에 잠겨 있던 차에 때마침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부채 두 장루를 받았습시다. 감사합니다. 편지와 서화첩은 숙부께서 하간(河間) 땅으로 갖고 가셔서 당분간 베낄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문사가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건만, 또 저의 어지러운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니 더욱 부끄럽습니다. 삼가 소정(邵亭: 金永爵) 대형께서 봄의 온화한 기운을 가득 받아 한여름의 불벌데위를 이겨내시고, 자연의 빼어난 경치를 술잔에 담아 시구로써 읊조리는 그윽한 정취를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사이로 새어나오는 광채를 눈을 비비며 바라보듯,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부자(附子)는 천중(川

98) 葭思: ‘蒹葭之思’의 준말로서, 문언체 서신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99) [제15신]에서는 “저의 숙부인 상포(相圃) 대인은 작년에 황제 폐하를 알현한 뒤 지부(知府)로 임명되셨다가 또다시 군수(軍需)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 화령(花翎)을 하사받고 사천(四川) 지역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숙부의 호가 ‘相圃’라고 밝히고 있다.

100) 河間: 北京, 天津, 石家莊 세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河北省 河間市 일대를 가리킨다.

101) 茲: ‘滋’자의 通假字이다.

102) 附子: 毛茛科(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carmichaeli* Debeaux)에 속하는 본초로서 만성신장염과 부종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봄에 채취한 것을 烏頭라고 하고, 子根이 형성된 9월에 채취한 것을 附子라고 한다.

103) 川中: 四川省 분지를 가리킨다.

中)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상품(上品)으로 치는데, 지금은 운송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기다렸다가 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전히 경성[春明]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지만, 다행히 경성에 계신 어머니님 아래로 모두 평안히 지내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위안 삼을 뿐입니다. 우선 답장 드립니다. 두서없이 편지글을 적으며, 평안하시기를 청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이문원(李文源) 배상

2.14 第十四信

臘曾奉差入都, ……¹⁰⁴聚拜, 緣伊居停, 調任寧遠¹⁰⁵, 又隨赴新任矣. 知念並及, 專復鳴謝, 煩請邇安, 不備心傳.

李文源 拜

【추신】 外先嚴行述一本, 祈代送申槩泉¹⁰⁶先生, 並爲致候, 緣使便匆匆, 未及作札也.

【역문】

선달에 일찍이 공무를 받들어 도성에 들어갔다가, ……한자리에 앉아 인사드리고 그 분 맥에서 머물렀던 것이 인연이 되어, 영원(寧遠) 지역으로

104) 이 중간의 내용은 落張 되었다.

105) 寧遠: 지금의 遼寧省 興城市에 있던 寧遠衛를 가리킨다. 이문원은 [第2信]의 첫 단락에서 “己未三月五日奉寧遠衛手示短幅, 作答文廣盛于姓寄上.”라고 하여 본인이 영원위에서 김영작의 편지를 받았음을 밝힌 바 있다.

106) 槩泉: 조선 후기의 문신인 申錫愚(1805-1865)의 별호이다. 그의 본관은 平山이고, 자는 聖如이며, 호는 海藏이다. 純祖 28년(1828)에 진사과에 올라 1834년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1857년 대사헌이 되었고, 이듬해 한성부판윤을 거쳐 1859년 형조판서에 이어 예조판서에 올랐다. 1860년 冬至正使로 淸나라에 가서 程恭壽, 沈秉成, 董文煥 등의 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으며, 당시의 견문과 체험을 기록한 《入燕記》를 남겼다. 시호는 文貞이다.

부임했다가 또다시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염려의 편지를 받고, 이에 답장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삼가 평안하시기를 청하오며, 간략히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이문원 배상

〔추신 역문〕 그밖에 선친의 행장 한 권을 신금천(申槩泉) 선생께 대신 전해주시고 아울러 안부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편지 심부름하는 이가 급히 재촉하는 통에 미처 금천 선생께 편지를 쓰지 못하였습니다.

2.15 第十五信

客臘¹⁰⁷⁾ 貴邦申賀使入都, 接奉瑤章, 備蒙關注, 回環盥誦, 感佩殊深. 就稔邵翁先生大人榮參樞密, 德位兼隆, 鴻猷久著於海東, 駿譽遙傳於日下, 斗山在望, 翹頌彌殷. 去夏蒙賜誄文, 業經展讀於先君靈位之前, 意摯情眞, 源等匍匐敬聆, 悲感交集. 行述現已授梓, 俟刷就時當卽奉上. 茲荷申琴泉先生俯念舊誼, 駕臨蓬華弔慰, 撫今追昔, 益深風木之悲, 並仰見琴翁文采風流, 兩次攀談, 不勝欽佩¹⁰⁸⁾. 乘其回便, 附寄蕪函, 卽祈鑒督. 尙祈俯念先人舊好, 賜以魚書¹⁰⁹⁾, 籍慰遠懷爲荷.

相圃家叔去歲引見, 蒙恩以知府, 用因軍需, 賞戴花翎¹¹⁰⁾, 需次四川. 源仲弟

107) 客臘: 지난해 설달을 가리킨다.

108) 北京에 도착한 직후인 庚申(1860)年 설달 그믐날 申錫愚는 작고한 李伯衡의 집을 찾아가 弔問하고 그의 장남 李文源과 筆談을 나누는 과정에서 從叔 父인 申在植과 李伯衡의 두터웠던 우정을 회고하고 아울러 2년 전에 金永爵이 使臣으로 왔다가 李伯衡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했다고 전한다. 《海藏集》 卷15 《入燕記》 <與李郎中文源疏>, 卷16 《入燕記》 <祭李雨帆伯衡>, <文李郎中心傳家弔慰> 참고. (김명호,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에 대한 고찰>, 《古典文學研究》 32輯, 2007, 476쪽)

109) 魚書: 《樂府詩集》에 수록된 <飲馬長城窟行(一)>의 “客從遠方來, 遺我双鯉魚. 呼儿烹鯉魚, 中有尺素書.”에서 따온 것으로, 후세에 흔히 편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10) 花翎: 清代에 황족 또는 고관들에게 하사한 장식으로, 모자 뒤에 늘어뜨리는 孔雀의 꼬리털을 말한다.

明文濤, 號韻松, 年十五歲, 恩蔭¹¹¹候選¹¹²知縣. 季弟名文溥, 號心泉, 年十四, 候選同知¹¹³. 源守制¹¹⁴都門, 無善足述. 大小兒自去春患結喉¹¹⁵時疫, 與二五小兒相繼夭殂, 四小兒名世楨, 年九歲, 尙幼, 讀《子□》. 家叔已歸里. 陳少言舍親以從九需次陝西, 已於去秋出都, 知念并以附聞. 京寓自家慈以次, 均稱平順. 賤軀拘適, 堪慰錦懷. 未泐奉復, 敬請台安惟常, 垂照¹¹⁶. 不宣.

弟 李文源 頓首

【역문】

지난 해 선달에 귀국의 하례(賀禮) 사신들이 도성에 왔을 때 대형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모로 관심을 쏟아주심에, 누차 읽어보며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소옹(邵翁) 대형께서 조정의 중추 기관으로 영전하시니 덕망과 지위가 더불어 높아지셨습니다. 대형의 크나큰 지혜는 오래도록 조선 땅에 드러나고 높은 명성은 온 천하에 멀리 전해질 터이니, 태산과 북두를 우리르듯 그 우뚝한 칭송은 더욱 성대해질 것입니다. 지난 여름 보내신 뇌문(誄文)을 받아 이미 선친의 영위 앞에서 펼쳐 읽었습니다. 그 담긴 뜻이 극진하고 진실 되었기에 저희들은 엮으려 경청함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행장(行狀)은 지금 이미 판각을 맡겼으니 인쇄 되는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신금천(申琴泉) 선생께서 옛 우정을 생각하시어 제 집에까지 오셔서 조문하셨습니다. 작금의 망극한 심정을 위로하고 지난날들을 회고해 주시니,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때늦은 회한의 슬픔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울러 선생의 문체와 풍모를 우리르며 두 차

111) 知縣: 明代 이후 縣一級에 해당하는 最高 行政長官에 대한 호칭이다.
112) 候選: 清代의 직제로서 內職의 郎中, 外職의 道員 이하 관직에 처음 考試를 거친 자나 捐納 출신 등이 선정되는 중간 절차를 말한다.
113) 同知: 청대의 관직명으로 府州 또는 鹽運使의 副職을 가리킨다.
114) 守制: 古代에 부모상을 당한 자식이 27개월 동안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고 집에서 근신하는 喪禮를 가리킨다.
115) 結喉: 목젓 또는 후두를 가리킨다.
116) 垂照: 문언체 서신의 결미에 사용되는 인사말로, “幸垂照鑑”을 줄여 쓴 것이다.

레 말씀을 나누고 나니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하는 인편을 통해 두서없는 편지를 보내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선친과의 옛 우정을 생각하시어 조문편지를 통해 멀리서나마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숙부인 상포(相圃) 대인은 작년에 황제 폐하를 알현한 뒤 지부(知府)로 임명되셨다가 또다시 군수(軍需)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 화령(花翎)을 하사받고 사천(四川) 지역으로 부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 둘째 아우인 문수(文壽)는 호가 운송(韻松)으로 열다섯 살인데, 은음(恩蔭)을 입어 지현(知縣)의 후선(候選)이 되었습니다. 막내아우인 문부(文溥)는 호가 심천(心泉)으로 열네 살이며 동지(同知)의 후선(候選)입니다. 저는 도성 안에서 수제(守制)하고 있기에 별로 말씀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큰 아이는 지난봄 때마침 유행하던 편도염[結喉]을 앓더니 둘째, 다섯째 아이와 함께 잇달아 요절하였습니다. 넷째 아이인 세정(世楨)은 나이가 아홉 살로 아직 어린데 《子□》를 읽고 있습니다. 숙부께서는 이미 낙향하셨습니다. 진소언(陳少言) 대형은 제 친척으로 종구품(從九品)의 관직을 하사받고 섬서(陝西) 지역으로 부임하게 되어 지난 가을에 경성을 떠났습니다. 염려하실 것 같아 이 소식을 덧붙여 전합니다. 경성 집에는 어머님 아래로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답장을 드려 삼가 항상 평안하시기를 청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우 이문원이 돈수합니다.

참고문헌

- 《中朝學士書翰錄》，고려대학교도서관 한적실 소장본.
金永爵, 《邵亭文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永爵, 《邵亭詩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弘集, 《金弘集遺稿》，高麗大學校出版部, 1976.
董文渙, 《韓客詩存》，書日文獻出版社, 1996.
(清)李放, 《皇清書史》. (臺北) 新文豐出版社, 民78.
- 강찬수, <《中朝學士書翰錄》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중국학논총》40집, 2013.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19집, 2008.
김명호, <董文渙의 “海客詩存”과 한중 문학 교류>, 《한문학연구》26집, 2000.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文獻研究》(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李維基, <典雅清俊話素箋>, 《中國拍賣》5월호, 2003.
梁穎, 《說箋》,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2.
楊雨蕾, 《燕行與中朝文化關係》, 上海辭書出版社, 2011.
王元周, <朝鮮開港前中朝宗藩體制的變化>, 《中山大學學報》51집, 2011.
俞劍華, 《中國美術家人名辭典》,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1.
이춘희, <藕船 李尙迪과 晚淸 文人の 文學交流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천금매,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鄒振環, <清代書札文獻的分類與史料價值>, 《史林》5期, 2006.

Abstract

Jungjo Hagsa Seohanlog(中朝學士書翰錄) of Cursive Script : Its Deciphered Text and Annotated Translation

Kang, Chan-soo(Wonkwang Univ.)

Kim, Hee-kyoung(Seoul Univ.)

Cha, Young-ik(Eulji Univ.)

Jungjo Hagsa Seohanlog(《中朝學士書翰錄》), recently found in the rare books collection of Korea Univ. library, is a collection of cursive letters and poems that six Qing Dynasty's scholars--Cheng Gongshou (程恭壽), Chen Han(陳翰), Li Xian(李銜), Weng Xuehan(翁學涵), Zhang Bingyan(張丙炎), Li Wenyuan(李文源) sent to two Choson Dynasty's scholars, Kim Yongchak(金永爵), and Kim Hongchip(金弘集), in the late 19th century. Testifying to the various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ultures and nations, it is an invaluable historical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responding poems by the scholars of two different regions.

Through a preliminary decoding of these letters and poems collected in *Jungjo Hagsa Seohanlog*, an inquiry about the consensus among scholars about some of its ambiguous sentences, and a comparative study of relevant historical documents as background information, I investigate the undiscovered contents of "Yeonhaengnok"(燕行錄), and some of lost listings in poem anthologies of the period. By doing so, I hope to facilitate a further study that can discover and make up the missing contents of *Kim Yongchak's* anthology and several unexplored, hidden stories of these Qing Dynasty's scholars.

Finally, this paper wishes to provide the research materials on the

actual mod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at reveals different historical perspectives, and the mutual exchanges on both cultural and literary levels. A meaningful study in this field will ultimately expand the horizon of an intercultural study of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th century.

▣ Key words : Jungjo Hagsa Seohanlog, Kim Yongchak, Kim Hongchip, Qing Dynasty scholar, Yeonhaengnok, Literary

접수일자: 2016. 7. 1 심사일자: 2016. 7. 18 게재결정: 2016. 8. 1

